

영암군, 제6회 마한축제 준비 힘찬 첫걸음

10월12일 개막 60일 앞두고 추진위원 35명 위촉

마한 역사 정체성 고취·군민화합 축제분위기 조성

영암군이 제6회 마한축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9일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제6회 마한축제 마한촌 조성과 마한축제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을 위한 운영회의를 개최했다. 전동평 군수를 비롯한 도·군의회와 문화예술단체장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위원 35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또한 임원진을 구성하고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 제6회 마한축제 기본계획을 설명하는 등 축제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운영회의 결과, 추진위원회에서는 유인학 위원장, 이승훈 세한대학교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추대했으며 김점수 부위원장, 전갑홍 사무총장을 선출했다. 추진위원들은 마한축제 기본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상호간에 교환하면서 앞으로 축제의 발전방안 모색을 통해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협의했다. 오는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개최되는 제6회 마한축제는 '마한을 play하다'라는 주제로 마한문화공원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군은 지역축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군민의 화합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미래 마한의 자산인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마한의 역사적 정체성을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편하는 등 신규 프로그램 10종을 반영, 총 5개 부문 30종의 프로그램으로 꾸려진다. 또한 마한의 대표적인 고분인 시흥

내동리 쌍무덤에서 마한시대 최상위 수장층 유물인 금동관편을 비롯해 수많은 유물을 발굴하는 큰 성과를 거둔 한해로 제6회 마한축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의미있는 축제로 개최될 전망이다. 전동평 군수는 "제6회 마한축제를 통해 마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품격있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흥 내동리 쌍무덤의 국가 지정문화재 승격과 마한역사테마파크 조성 등 마한문화공원 일원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이봉영기자



진도서 제15회 전남농업경영인대회 성료

제15회 전남도 농업경영인대회가 최근 진도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사진> 19일 진도군에 따르면 제15회 전남도 농업경영인대회가 '전남의 미래는 농민으로부터'라는 주제로 최근 3일간 가계해수육장 일원에서 열렸다. 대회 첫째 날에는 시·군 화합의 밤 행사로 만남의 장이 열렸다. 둘째 날에는 미래농업 발전 대토론회와 환경 만찬회에 이어, 환영식이 개최돼 10개 분야 6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진도 출신 가수 송가인이 출연하는 MBC 가요베스트 행사를 대미로 장식하면서 다음날 시·군 회장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대회 기간 중에는 진도군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진도군 관광버스 투어, 우수농기자재 전시회, 전통 먹거리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농업은 전남의 희망이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농업 농촌이 살아야 한다"며 "한농연 회원들이 전남을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힘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잘사는 농촌, 돈버는 농업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진도=박세권기자

나주시, 공익활동가 23명 양성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19일 "제2기 나주시공익활동가 수료식을 갖고 공익활동가 23명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예비 공익활동가를 대상으로 총 7회에 걸친 기본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참여자들은 ▲공익활동가의 역할 ▲마을에서의 인권 ▲선진지 탐방 ▲주민소통과 의사결정 등 30시간의 기본교육을 성실하게 마쳤다.

수료식에는 강인규 나주시장을 비롯해 공익활동가들이 활동하게 될 읍·면·동의 관계공무원, 1기 공익활동가 등이 참석해 수료를 축하하고 격려했다.

강인규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각자의 생업 여건에도 불구하고 나주시 공익활동가라는 새로운 역할에 도전해준 수료생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열심히 갖고 닦아온 역량을 마을 현장 곳곳에서 펼쳐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정종환기자



고당도 함평 자옥포도 본격 출하 여름철 별미(別味) 함평 자옥포도가 본격 출하된다. 지난해 지역우수농가로 선정된 월야면 금화농원(대표 김옥현)이 지난 16일 자체브랜드 '함평천지 자옥포도' 수확을 시작했다. 씨가 없어 어린이와 젊은 층에게 인기 많은 함평 자옥포도는 적절한 강수와 풍부한 일조량, 큰 일교차를 가진 월야면에서 수확돼 다른 곳보다 당도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함평 지역 내 농협 하나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에 단독 공급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해남 하수처리시설 증설 주민불편 선제 대응

해남읍 하수용량 증가...郡,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장 통합처리시설 관리 계획도 검토

해남군이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용량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증설을 추진하는 등 주민 불편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

19일 해남군에 따르면 해남읍 용정리에 위치한 해남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03년 완공돼 최대 1일 9천t의 하수를 처

리할 수 있다. 해남읍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고 우של체육공원 전지훈련팀 증가, 구교리 일원 상업시설 확장 등의 요인으로 하수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공공하수시설 하수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기 전 증설하기 위

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해 대비할 계획이다. 더불어 기존 농어촌 마을 하수도가 마을 단위로 구축돼 다수의 하수처리장이 난립하고 소규모 마을이 소외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통합처리시설로 관리하는 방침도 기본계획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앞서 해남군은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국가 단위의 국가하수도종합계획과 중요 유역 단위로 구분되는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이어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재수립해야 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기본계획이다. 해남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은 2020년 10월 완료될 예정이며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의 승인으로 최종 확정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기본계획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계획을 반영해 주민 불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안정적 하수 처리로 수질오염 예방과 생태계 보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필용기자

완도산 해조류, 대만 첫 수출길 올랐다

완도망영어조합법인, 세모가사리·건 다시마 등

전남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사업 마케팅 지원의 일환으로 대만 가오슝 수출상담회(지난해 11월 21-22일)에 참가했던 완도망영어조합법인(대표 이수화)이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센터장 임영태)와 가오슝 K-FI SH가 연계 협력을 통해 최근 완도산 해조류 제품을 대만에 수출 선적하는 쾌거를 이뤘다. 완도망영어조합법인과 계약한 대만의 신초실업유한회사(유통회사)는 한국, 일본 식품을 대만으로 수입하는 회사로 마른 김, 다시마를 주로 수입하고 있다. 선적식에는 이수화 대표 및 임영태 센터장 등이 참석했으며 완도농공단지에서 위치한 완도망영어조합법인 공장에서 세모가사리, 건 다시마 등 완도산 해조류 제품 6만 달러 어치를 선적했다. 임영태 해양바이오연구센터장은 "전남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사업 수혜 기업의 해외 시장 진입을 위해 전남도 및 완도군과 해양바이오연구센터가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한 결과 좋은 결실을 맺게 됐다"며 "특히 완도망영어조합법인은 센터에서 일자리 교육과 창업, 제품 개발까지 센터 인큐베이터 지원의 우수한 모범 사례로 이번 수출이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기자

목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가모집

목포시가 20일부터 '2019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를 추가 모집한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시민에게 바우처 형태로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고 시민이 스스로 원하는 서비스 종류와 제공기관을 선택하는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사업이다. 목포시는 하반기에 1억여원을 투입해 총 8개 사업에 204명을 추가 모집한다. 서비스 제공 대상사업은 아동·청소년 분야 4개 사업, 장애인 분야 1개 사업, 노인 분야 3개 사업이다. /목포=정해선기자

아동·청소년 서비스는 ▲아동청소년 드림터치 서비스 ▲소외가정 통합사례관리서비스 ▲아동건강 관리서비스 ▲남도문화예술 통합서비스 등이다. 장애인 서비스는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이며 노인 서비스는 ▲건강 100세 운동힐링서비스 ▲맞춤형 치매예방서비스 ▲고령자를 위한 라이프코칭 및 재무설계서비스 등이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140% 이하(사업별 상이) 가구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별 접수순으로 선정한다. /목포=정해선기자

토지 5000평 **매매** 지리산 관광온천 **지구**

- **계획관리지역, 전망 좋음**
- **답 3300평, 임야 1355평, 전 330평**
- **송원리조트(블루션) 옆, 현 상업 나대지 상태**
- **지리산 골프장/케이블카 유치중**
- **모든업종 개발가능**
- **감정/시세 - 약 30억**
- **매매 - 협의**

문의. 010-3605-5000